

# 남북교류협력 방안 지혜 모아

## 도, 세부추진 간담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남북교류협력 세부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연구원은 16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농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선도'를 주제로 전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갖고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 및 워크숍에서 2007년 전북도와 함께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폐지농장을 지원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현

황과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분야 교류방안을 제안했다.

강 총장은 "앞으로 농업분야는 북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고도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농업개발구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고 교류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 거래 말근사전편찬위원회 이재규 사무처장은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가 접목된 분야의 교류 가능성이 높다"며 남측 창작과 북측 민족가극에서 공통적으로 공연한 춘향전을 핵심 아이템으로 제안하면서, "춘향전 교류는 민족악기, 무대연출, 연출기법 등 공연예술 전 분야의 인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정부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교류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가 강점을 지닌 농축산 분야,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선추진 대상사업 6개를 선정해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전북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전라북도는 과거 한반도를 살려주던 농경문화와 흥과 멋을 품은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며 "문화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영구 배제... 100만원 이상 벌금형도 퇴출

## 일부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유형을 막론하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감사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일부개정안은 임용 결정과 당면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더불어 이러한 징계 처분의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고, 임용결격 기간도 종전의 형 확정 후 2년에서 형 확정 후 3년으로 늘렸다.

특히 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에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개정안은 또한 공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은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약 조치가 늦어지거나 묵인·은

폐 정황이 있을 경우 인사혁신처가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된 기관명과 비위 관련 사실을 '개월 이상'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 비위 관련 고충이 제기될 경우 심사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황서중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새만금 전기 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협약 1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원택 전북도 정부부지사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상석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이 새만금 전기, 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생애 마지막 일년까지도 임실치즈 발전 위해

## 고 지정한 신부의 마지막 선물 임실군표 '매운치즈' 고추 활용한 캡사이신 치즈 개발에 몰두 '성공' 특허출원·피자토핑용 후속 개발 중 제품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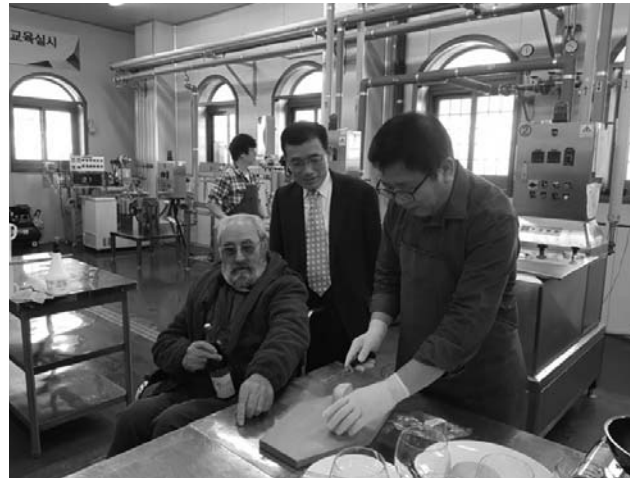
향년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임실치즈의 아버지 고 지정한 신부가 임실군에 남긴 마지막 선물은 고추를 활용한 캡사이신 치즈였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 신부는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지난 일년간 캡사이신, 즉 매운치즈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공에 이르렀다.

지 신부는 지난 2017년 말 임실치즈(식품연구소)를 찾아 "한국인이 매운 맛을 좋아하니 매운 치즈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고 제안했다.

당시 지 신부는 고추와 치즈를 결합해 매운 맛을 내는 치즈와 피자토핑용 재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연구결과 고추캡슐용 치즈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지 신부와 연구원들은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활용해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을 활용한 치즈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 지정한 신부가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지난 일년간 매운치즈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공에 이르렀다.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난 해 5월 매운치즈 개발에 마침내 성공했다.

연구소측은 지정한 신부와 함께 개발한 매운치즈를 특허 출원했으며, 시제품 개발에도 나섰다.

또한 매운치즈를 피자 토핑에 첨가한다면 기존 피자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개발 중이다.

이상천 연구소장은 "재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지 신부님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운치즈를 만들어 보자며 연구소를 찾아 오셨다"며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연구소에 직접 오셔서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에 몰두하셨다"고 전했다.

임실치즈연구소는 개발에 성공한 매운치즈와 피자토핑용까지 상품화하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상용화

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 신부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년까지도 임실치즈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 분이 임실군민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이 은혜는 군민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 신부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치즈역사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대에 조성 중인 농촌테마파크에 가칭 '지정한 기념관'을 만들어 그가 남긴 임실치즈 50여년간의 발자취를 농림식품축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지 신부의 빈소가 차려진 전

주중앙성당에서는 심 민 군수, 신대용 군의장과 군의원 등 많은 임실군민들이 찾아 장례미사에 참여했으며, 성직자 묘지인 치명자산 성지에 고인을 모셨다.

문재인 정부는 생전에 지 신부가 척박했던 임실군을 한국치즈의 대명사로 성장시켰으며, 임실치즈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치즈산업의 메카로 만든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한편 벨기에 출신인 지 신부는 지난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이후 가난에 힘겨워했던 임실 주민들을 위해 신앙 두 마리의 유유취를 농림식품축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지 신부의 빈소가 차려진 전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도,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 도민감사관 56명 위촉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감사관 56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연령과 회계, 건축,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14개 분야에서 선정하였고, 향후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은 도민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등을 신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사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3년 6월 청렴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열린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2019년 감사방향 및 중점과제 설명, 도민감사관 운영계획 설명, 도민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도민감사관들이 지역

일선현장에서 평소 체감하고 있던 불편사항과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는 중대한 시기에 병철한 감사자이자 후원자인 도민감사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감사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북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민감사관들이 지역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